의안 번호	132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장병운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장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

발의연월일 : 2026. 10. 30.

발 의 의 원 : 장병운 강길순 강창석 김동엽 김우진 남호준 박강우 박연정 배명갑 이무식 전홍표 지상록 하경석 의원(13명)

찬 성 의 원 : 곽은정 의원(1명)

1. 제안 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빙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인 ‘북극항로(NSR)’의 상업적 운항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전 세계 해양 물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 대비 운항거리를 최대 40% 단축하고, 운항 시간을 10일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경로로서, 물류비용 절감과 운송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우리 창원시는 동북아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신항을 품고 있으며, 국가 철도망(진해신항 입항 철도 및 내륙 철도 물류망)과 연계하여 해상·육상 물류를 완벽히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입지를 갖추고 있음.

❍ 창원시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진해신항 건설과 함께 철도 물류망 연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쇄빙·친환경 선박 배후 지원 및 물류·산업 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에 창원시의회는 100만 창원시민의 뜻을 모아 진해신항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 수립, 진해신항 배후 단지 및 철도 물류망 연계 강화, 항만공사 통합 본사 진해신항 유치 및 해양항만 관련 기관 이전 등을 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를 공식 결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창원시의 종합 전략 및 거점화 계획 수립**

- 진해신항에 북극항로 진출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원 체계 마련으로 창원시의 거점항만 계획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진해신항과 국가 철도망을 결합한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진해신항은 해상물류와 육상 철도망의 지리적·산업적 최적 입지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복합 물류망 체계를 조속히 확충할 것을 촉구함

❍ **기술(AI)과 서비스(MRO)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항만 생태계 구축 및 업무, 상업, 주거가 공존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단순 물류 중심의 항만을 넘어 기술(피지컬 AI)과 서비스(항만 MRO)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 항만’ 및 업무, 상업, 주거, 교육 시설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함

❍ **진해신항 중심의 해양 주도권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 진해신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동력 확보로 부산항만공사(BPA)의 명칭 변경과 함께 항만위원 추천권의 동수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양항만 관련 기관의

창원시 이전에 대한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고 항만 주도권을 확고히 다질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 붙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문

창원시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빙하 감소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상 경로인 ‘북극항로(NSR)’의 상업적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해신항이 글로벌 물류 지형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엄숙히 인식한다.

진해신항은 단순히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토목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최대 40%, 운항 시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물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핵심 전략 자산이다.

창원시의회는 이제 북극항로의 개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진해신항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변화된 해양 산업 환경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해양물류 주도권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한다.

하나. 창원시는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전진기지 및 거점항만 지정’을 창원 시정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라.

하나. 창원시는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진해신항의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북극항로 전용 부두 확보 등 기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은 진해신항과 연계된 대량 물류 수송용 고속 철도망(CTX 등)을 조속히 구축하여, 항만 배후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진해신항이 글로벌 해양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피지컬 AI)과 서비스(MRO)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항만 생태계를 구축하고 업무, 상업, 정주 등 복합기능 배후단지 조성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 및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항만배후단지 인프라를 구축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진해신항과 관련된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BPA)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동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과 해양 물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수도 특별법(해양수도 이전기관 특별법 등)」의 신속한 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은 항만공사 통합 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의 메가포트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 허브의 경쟁력 거점이 될 진해신항에 통합항만공사 본부를 설립하라.

2026년 10월 30일

창 원 시 의 회